

현안리포트 05-048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2005.12

kotra

통 상 전 략 팀

<요 약>

- 한-아세안 FTA가 2005.11월 상품자유화 기본협정을 타결
 -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상품자유화 모델리티(Modality)” 합의도출
 - 일반품목(Normal Track), 민감품목(Sensitive Track),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Track)별로 양허기간 및 범위 제시
 - 구체적 상품양허안, 원산지 부속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건은 추후 협상
- 한-아세안 FTA를 통해 아세안 시장에서의 우리 수출은 중국, 일본과의 경쟁여건이 동등해지는 보완책 마련
 - 품목별로는 기계류, 고부가가치 철강, 가전 등이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
 -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은 기존 무관세가 적용되던 품목들로서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는 미미하나, 포괄적인 교역자유화 조치로 인해 기업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자동차 등은 아세안측의 시장개방 미진으로 단시일내 수출확대가 어려울 전망
 - 아세안은 자동차를 관세인하 유예 및 제외 대상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 일본은 아세안과의 FTA를 통해 주력시장 공략강화, 최적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구사
 - 우리 수출기업들은 한-아세안 FTA 체결을 계기로 아세안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 구사 필요

<목 차>

I. 한-아세안 FTA 협상 내용	1
II. 주요 품목별 우리 수출에의 영향	4
1. 무선통신기기	4
2. 반도체	5
3. 가전	7
4. 섬유	9
5. 철강	11
6. 기계류	12
7. 자동차 및 부품	14
8.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
III. 중국 및 일본의 對아세안 FTA 전략	18
1. 중국	18
2. 일본	19
IV. 시사점	22

I. 한-아세안 FTA 협상 내용

□ 주요 추진 경과

2004.3월	공동연구 발족
2004.11월	협상개시 선언
2005.2~11월	총 8차 협상 개최
2005.11월	상품자유화 모델리티 합의
2005.12.13	상품자유화 협상 실질타결 서명
2006.4월	상품협정 양허안, 원산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 최종합의 예정
2006년 내	국회 비준 및 발효 예정

□ 주요 내용

- 2005.11월 8차 실무협상에서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상품자유화 모델리티(Modality)” 합의 도출
 - 우리나라 및 아세안 6개국¹⁾이 동등한 의무를 수행하고 아세안 국가 중 이른바 CLMV 4개국²⁾은 일부 의무를 유예받는 구조로 진행
 - 일반품목(Normal Track), 민감품목(Sensitive Track),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Track)별로 양허기간 및 범위 제시
- 구체적 상품양허안, 원산지 부속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건은 추후 협상

1)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2) 캄보디아(C), 라오스(L), 미얀마(M), 베트남(V)

□ 상품시장 개방 (상품자유화 모델리티)

○ 일반품목 (Normal Track)

- 전체 품목 중 90%(품목수/수입액 기준)를 2010년까지 관세 철폐
- 단, 이 중 5% 내외는 2012년까지 연장 가능
- 베트남은 2016년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8년을 기한으로 관세 철폐

○ 민감품목 (Sensitive Track)

- 전체 품목 중 7%(품목수/수입액 기준)를 2012년까지 20% 이하로,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인하
- 베트남은 2021년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24년까지 5% 이하로 관세 인하

○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Track)

- 나머지 품목 3%(품목수/수입액 기준)는 양허제외 또는 일부 관세감축을 통한 시장보호
- 관세율 수준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관세를 인하하거나, 일정 비율로 관세인하
- 일부 품목은 관세할당 시행 및 양허 제외

○ 구체적인 품목별 양허 리스트는 추후 협상을 통해 2006.4월까지 확정 예정

□ 원산지, 개성공단 제품 특혜 등은 2006.4월까지 합의 예정

- 원산지 기준은 일반적으로 역내 부가가치 40% 원칙에 합의 하였으나, 섬유 및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협상은 추후 협상 필요
- 개성공단 제품의 우리나라 원산지 인정 여부는 아세안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합의 도출
 - 개성공단 문제는 지난 11월 개최된 APEC회의에서 한-아세안 통상장관 간 상당부분 이견 해소
 - 한-싱가포르, 한-EFTA FTA 협정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국내산 원산지 60% 이상 충족) 원산지 인정이 포함된 바, 금번 한-아세안 FTA에서도 합의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전망

- 협상 개시 9개월 만에 기본 협정에 대한 완전 타결을 이루고 양 측 정상 간 서명 (2005.12.13, 말레이시아)
- 또한 상품시장 개방의 기본원칙이 되는 상품자유화 모델리티에 대한 합의를 이룸으로써 향후 한-아세안 FTA 최종 타결의 중요한 기반 마련
- 일부 아세안 국가가 상품자유화 모델리티, 원산지 기준 등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궁극적 이익을 설득하여 2006.4월까지 최종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II. 주요 품목별 우리 수출에의 영향

1. 무선통신기기

☐ 현지 인지도

- 우리나라 수출품 중 현지 인지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 가격, 품질면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 보유
 -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산 휴대폰 제품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음.
- 한류의 영향,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현지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는 추세
- 단,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노키아, 모토롤라 등이 우리 제품에 비해 더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며 소비자 선호도에서 우세

☐ 경쟁국 대비 비교

- 브랜드 파워, 품질면에서 우위
 - 노키아가 최근 아세안 시장에서 고급형 휴대폰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고기능 고급제품의 상징은 한국산으로 인식
- 노키아, 모토롤라 등과는 고급품 시장에서, 중국산과는 중저가 시장에서 경쟁 중
 -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빠른 약진이 위협 요인으로 부상 중

☐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예상되는 변화

○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선통신기기는 무관세 품목으로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베트남은 현재 휴대폰 등에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 인하에 따른 이득 기대

○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보다는 FTA 체결을 통한 국가 인지도 제고, 교역자유화 조치에 따른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주요 바이어 반응

국가명	바이어명	의견
태국	N사	무관세 적용 품목이므로 FTA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인도네시아	C사	부품 등 일부 품목에서 관세인하로 인해 가격이 인하되면 시장 확대 예상
	I사	관세인하 등 가격하락 요인 발생 시 원활한 가격협상 및 시장확대 기대
싱가포르	P사	기존 무관세 적용 제품으로 변화 없음.

2. 반도체

☐ 현지 인지도

○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제조업 생산기지 지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제품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양호

- 품질 면에서 유럽, 일본, 미국과 동등한 인지도 유지

- 필리핀 등지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을 최상급으로 평가하며 내수 및 수출시장용 제품 생산에 핵심 부품으로 사용

☐ 경쟁국 대비 비교

- 중국 및 대만에 비해 가격 면에서 다소 열세이나, 품질에서 우위
 - 아세안 지역에서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미국, 일본,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산 반도체를 선호

☐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예상되는 변화

- 대부분의 국가가 반도체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포괄적인 교역자유화 조치를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기대

☐ 주요 바이어 반응

국가명	바이어명	의견
태국	H사	무관세 적용 품목이므로 FTA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3. 가전

☐ 현지 인지도

- 한류의 확산으로 우리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품목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에서 고급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우리나라산 TV, 냉장고, 에어컨 등은 아세안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
- 아세안 국가의 대부분이 완제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므로 부품을 수입하여 현지 조립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고급가전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에 버금가는 인지도 형성
- 우리 기업들의 대대적인 홍보 및 마케팅활동으로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도 급속 상승
- 캄보디아 등 가전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미미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 필요

☐ 경쟁국 대비 비교

- 한국 및 일본은 현지 생산법인을 통해 조립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은 저가 완제품을 공급

○ 일본과 중국의 FTA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중국은 중-아세안 FTA를 통해 아세안 전체 시장에서 가격 우위 조건 독보적
- 일본은 일-태국, 일-말레이시아, 일-필리핀 FTA 등을 통해 관세인하 효과를 누리게 됨에 따라, 고급가전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불리해질 전망

□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예상되는 변화

- 현재 가전 완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25~45%)가 인하되면, 가격경쟁력에서 매우 유리
- 일반 가전은 현지 조립생산, 고급가전은 완제품 수출 등 전략적 시장공략 가능
- 아울러 주요국 현지 생산시설을 활용,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신시장 개척에 유리

□ 주요 바이어 반응

국가명	바이어명	의견
태국	H사	-인니, 중국산의 가격이 한국산보다 약 20~30% 저렴하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 -한-아세안 FTA 이후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이 10~15%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말레이시아	S사	한-아세안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 한국산의 가격경쟁력 제고 예상
인도네시아	F사	이미 저가의 중국산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한국산의 관세가 인하되어도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필리핀	C사	FTA 체결 시 간접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산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망
베트남	A사	한-아세안 FTA 체결 시 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형TV, 대형 냉장고 수입을 늘릴 예정

4. 섬유

☐ 현지 인지도

- 아세안 지역은 우리 기업을 비롯한 섬유 생산기지 밀집 지역으로 주로 직물, 원부자재 수입이 많은 비중 차지
- 우리나라산 섬유제품은 현지 시장에서 높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나,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점차 밀리고 있는 추세
 - 더욱이 섬유쿼터 폐지 이후 중국산에 밀린 동남아 섬유 생산기지의 위축으로 이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 예상

☐ 경쟁국 대비 비교

- 중국산이 가격 면에서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발효된 중-아세안 FTA 효과로 중국산 제품은 더욱 경쟁력을 가지게 될 전망

☐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예상되는 변화

- 중국산의 절대 우위,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 섬유 생산기지의 위축 등에 따라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 섬유제품의 대아세안 수출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

□ 주요 바이어 반응

국가명	바이어명	의견
태국	T사	대만산 대비 품질경쟁력이 있으므로, FTA를 통한 수출증가 예상
말레이시아	C사	FTA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필리핀	D사	섬유가 FTA를 통해 관세인하 품목이 된다면, 중국, 대만, 홍콩 대비 경쟁력 크게 개선 전망
베트남	D사	-2004년 이전에는 한국에서만 원단 수입 -2004년부터 중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여 현재 수입비중은 중국 80%, 한국 20% 임 -이는 중국산이 한국산에 비해 60~70% 가격인 데다 품질, 디자인 면에서도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 -한-아세안 FTA로 한국산 단가가 떨어진다면 약간의 수입증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래도 중국산 수입비중이 더 클 것임
	N사	-현재 홍콩, 태국, 한국에서 수입 -아세안국가내 수입관세(AFTA)는 5%, MFN(한국포함)은 50%로 관세차이가 엄청남 -한국산 패션의류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로 관세가 AFTA와 동일하게 된다면 한국산 수입 증가 용의 다대
캄보디아	D사	FTA체결에 따른 수입선 변화는 없을 전망
미얀마	E사	FTA체결에 따른 수입선 변화는 없을 전망

5. 철강

☐ 현지 인지도

- 냉연, 아연도 등 자동차용 강판과 같은 고급제품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

- 고급제품에서는 일본과 경쟁, 범용제품에서는 저가의 중국과 경쟁

☐ 경쟁국 대비 비교

- 범용제품 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대만산이 시장 석권

- 2006년 발효 예정인 일-태국 FTA협정에서 열연강판류는 즉시 관세를 철폐기로 예상되는 등 우리제품과 경쟁하는 일본의 고급제품들이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여건 조성

- 일본은 태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아세안지역 FTA(AFTA)를 활용, 아세안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세가 예상

- 중-아세안 FTA에서는 우리 주력 품목이 점진적인 관세인하가 예정되어 있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

- 아울러 우리나라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에서 중국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중국의 관세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예상되는 변화

- 고율관세 부과 제품의 관세인하 또는 철폐로 중국 및 일본과의 대등한 경쟁환경 조성
 - 열연, 냉연강판 등 경쟁력 우위품목은 고급화 전략에 따른 시장 공략, 기타 품목은 가격인하 효과 기대
- 한-아세안 FTA협상에서 우리 주력 철강제품이 최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주요 바이어 반응

국가명	바이어명	의견
태국	S사	FTA체결 시 한국산의 가격이 약 10% 낮아져 수입규모는 10~20%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필리핀	M사	한-아세안 FTA로 한국산의 경쟁력 제고 기대
싱가포르	T사	큰 폭의 가격할인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한-아세안 간 교역증대 효과로 재수출 물량 증가 기대

6. 기계류

☐ 현지 인지도

- 우리나라산 기계류는 품질 면에서 중국산에 비해 우수하나, 일본, 독일에 비해서는 열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
 - 중국산에 비해서는 고가제품

□ 경쟁국 대비 비교

-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제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 제품은 저가시장에서 경쟁력 보유
- 그동안 우세를 보이던 섬유기계 분야에서는 최근 저가의 중국산 및 인도산 제품의 유입으로 고전 중

□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예상되는 변화

- 5~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냉장 및 냉동기계류는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되면 인근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국제품도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에 따라 이들과의 동등한 경쟁여건을 위한 보완적 조치가 필요

□ 주요 바이어 반응

국가명	바이어명	의 견
인도네시아	R사	한국산은 가격이 높은 편으로, 관세가 면제되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K사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설장비를 중심으로 한국산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베트남	N사	-현재 한국에서 대부분 수입 -굴착기의 수입관세는 0%, 콘크리트 믹서차량은 10%로 저렴 -중국산, ASEAN 산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기는 베트남 시장에 없음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더라도 시장환경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미얀마	T사	-정부입찰 조건에 따라 한국산,중국산 등을 결정하며, 관세는 중요하지 않음

7. 자동차 및 부품

□ 현지 인지도

- 아세안 자동차 시장은 일본산이 절대 우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완성차 수입관세를 매우 높게 책정, 완성차 수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지 생산기지를 활발하게 운영 중인 일본산이 시장의 절대비중 차지
-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활동과 한류 영향에 따른 호감도 상승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대 추세
 - 베트남 및 캄보디아 시장에서는 상용차, 특수차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점유율 확대 중
 -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차량등록허가증(COE) 제한을 대폭 완화한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 상승 중
- 자동차부품은 Spare Parts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인지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산 자동차 점유율 상승 추세와 동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경쟁국 대비 비교

- 승용차 분야에서는 일본이 아세안 시장 대부분을 장악
 - 특히 일-태국, 일-말레이시아 FTA를 통해 일본산 완성차의 수입관세가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임에 따라 일본의 경쟁여건이 더욱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

- 중-아세안 FTA에서는 자동차가 민감품목에 포함되어 즉시 관세인하 및 철폐 대상은 아니나, 중국산 자동차부품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진입 중

□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예상되는 변화

- 한-아세안 FTA에서는 자동차가 관세인하 유예 및 제외 대상인 민감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바, 단기간 내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그러나 상용차 등 현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보이는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한 시장개방을 유도할 필요

-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마케팅, 소비자 대상 홍보활동 필요

□ 주요 바이어 반응

국가명	바이어명	의견
말레이시아	C사	-한-아세안 FTA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FTA가 체결되더라도 민감품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아 단기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오히려 자동차 산업 개방에 대한 정부측 입장 및 이에 따른 조치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W사	-최근 2년동안 한국산 spare parts 의 가격이 30% 가량 상승하였고 이에 중국으로 수입선을 변경하였음.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은 정부에 의해 보호되는 매우 민감한 산업이어서 FTA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인도네시아	M사	한국산에 대한 관세인하는 수입물량을 5%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필리핀	M사	-현재 일본 자동차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에 따른 부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상당량의 일본산 자동차용 위조부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일본 산 자동차 소유자들이 부품 교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반면 한국산의 경우 현재까지 위조부품이 유통되고 있지 않아 한국산 자동차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FTA체결 시 자동차 부품이 관세인하 및 면제 품목에 포함된다면 한국산 자동차 판매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싱가포르	O사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K사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베트남	Q사	-현재 수입선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중국 -한-아세안 FTA로 인해 단가가 낮아진다면 한국산 수입물량 증가 예상 -그러나, 가짜 한국산을 만들어 저가에 판매하는 중국산이 시장에 많아 중국산 수입판매상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캄보디아	L사	중고자동차용 한국산 부품의 시장기반이 확고해 수입선 전환 등의 계획 없음.
	C사	한국산 중고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감안, 대한 수입 지속 예정

8. 컴퓨터 및 주변기기

☐ 현지 인지도

- LCD 모니터, 노트북 등은 소비자 선호도 매우 우수
 - 데스크탑 완제품은 해외생산이 정착되어 국내 직수출 감소
- 아세안 시장은 가격시장으로 중저가 제품이 강세이나,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이 높은 편으로 대중적인 선호도에서는 중국 및 대만산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경쟁국 대비 비교

- 가격에서는 중국 및 대만, 품질에서는 일본과 경쟁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통한 시장 공략에 매우 적극적

☐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예상되는 변화

-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Ⅲ. 중국 및 일본의 對아세안 FTA 전략

1. 중국

□ 1980년대 이후 중국의 대외통상정책은 WTO 가입 및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두었고 FTA 등 지역주의에 대해선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FTA 추진 중

<중국의 국가별 FTA 추진현황>

구분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국가	홍콩('03) 마카오('03) 아세안('05)	칠레, 호주	한국, 인도, 한중일, GCC, 일본, 남아공 등

□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중일 FTA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성사가 어려워 우선 여건이 수월한 아세안과 먼저 FTA를 추진해 이니셔티브를 잡자는 전략

○ 중국과 아세안은 무역 및 투자협력 관계가 이미 심화된 상태인데다 아세안은 화상 경제권으로 이질성이 크지 않음.

○ 2005.7월 중-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이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일본

- 일본은 최근 아시아지역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에서 FTA 체결에 적극적
- 중-아세안 FTA가 '05.7월 발효된 이후, 아세안 지역 국가와의 개별적 FTA 추진은 물론 아세안과의 FTA 추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FTA 협상에서도 취약 산업의 보호에 비중을 두는 관점에서 상대방 국가에 무엇을 팔 것인가 하는 공세적인 관점으로 기본전략을 변경

<일본의 국가별 FTA 추진현황>

구분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국가	싱가폴('02) 멕시코('04) 필리핀('06 발효예정) 태국('06 발효예정)	한국, 말레이시아	아세안, 인도네시아, 대만, 칠레, 캐나다 등

- 또한 일본은 타겟시장 '우회공략'의 일환으로 FTA를 활용
 - 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자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인도 자동차 시장 공략에 태국-인도 FTA를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일본과 아세안 국가 간 FTA는 관세인하 측면에서만 볼 때 일본의 시장개방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아세안의 대일 수입시장 개방 효과가 큰 비대칭 구조임.

- 이는 이미 일본이 아세안 국가 대부분에 대해 GSP 등을 제공하면서 특혜관세를 적용해 온 반면, 아세안 국가는 IT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왔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에 일본산 부품소재의 안정적 공급과 최적의 글로벌 경영을 위한 자유로운 자원의 이동을 위한 포석으로 동 협정을 활용할 수 있음.
 - 나아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를 동시에 추진, 아세안 전체 시장에서의 우위확보 및 최적 생산기지 구축의 전략을 펴 나갈 것으로 전망
- 특히 지난 '05.7월 발효된 중-아세안 FTA를 활용, 장기적으로 일본-중국-아세안의 3각축을 연결하는 산업별 최적생산기지 구축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일본 전자산업계
 - 아세안과 중국은 일본 전자산업계의 주력 생산기지
 - 전체 TV의 53.9%, VTR/DVD의 86.0%, HDD의 97.1%를 아세안 및 중국에서 생산
 - 생산거점별 특화전략
 - 규모의 경제를 위해 유사제품의 생산을 특정 국가로 통합
 - 전자부품 생산은 중국에 비해 아세안이 더 유리(숙련된 기술 인력 보유)
 - 중국-아세안을 연결하는 통합 생산기지 조성
 -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및 저렴한 임금 + 아세안의 기술력

○ 일본의 자동차 산업계

- 역내 조립생산 고도화
 - 태국 및 인니 내 자동차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전량 아세안 역내에서 조달
- 지역별 특정 품목 전문 기지화 (토요타 사례)

국가명	주요 생산부품
태 국	디젤엔진, 바디판넬
말레이시아	핸들, 와이퍼
필리핀	기어, 유니버설조인트
인도네시아	가솔린엔진, 도어락

- 중국 및 아세안 역내 생산제품의 세계 수출확대 전략
 - 아세안 역내 부품조달 및 완성차 생산을 통한 경쟁력 획득
 - 중국 내 생산설비 확대

IV. 시사점

- 한-아세안 FTA는 중-아세안 FTA, 일본과 아세안 국가와의 FTA 체결에 따른 수출경쟁력 보완책으로서 반드시 필요
-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아세안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면서 우리의 주력 품목과 경합도를 높이고 있음.
 - 2005.7월 발효된 중-아세안 FTA를 통해 아세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에 한층 힘을 얻고 있음.
- 일본은 아세안 내 생산기지 최적화 전략을 통한 공략
-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 금번 한-아세안 FTA의 시장개방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은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로서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섬유, 컴퓨터 등은 해외생산에 따른 직접수출 감소로 FTA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기계, 가전 등은 관세인하 및 철폐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자동차, 철강 등은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현재 매우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아세안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에 의해 시장개방이 지연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태국과의 FTA에서 3,000cc 이상의 완성차 수입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을 관철시킨 바, 태국을 거점으로 한 아세안 지역 전체 대상 완성차 수출확대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 매우 높음.

□ 한-아세안 FTA를 통한 수출시장 확보 및 경쟁력 회복 노력 절실

- 중-아세안 FTA 보다 높은 시장개방효과, 비관세장벽 철폐 등 실질적인 교역확대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중국, 아세안 국가의 경우 관세 이외에 통관지연, 수입허가, 최저가격제도 등의 비관세장벽이 우리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KOTRA, 2005.7월 「한-아세안 FTA 협상과 아세안 국가의 비관세장벽 현황」)

□ 아세안 시장에서의 본격 경쟁에 대비한 체계적인 해외마케팅 전략 필요

- 한-아세안 FTA는 우리 수출이 보다 유리한 경쟁여건을 만든 것이기 보다는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여건이 동등해지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함.
- 현지 주요 바이어들은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할 때 보다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야 함을 강조
- 아울러 자동차 등 즉시 시장개방 효과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한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